

[그때 그 이야기]

낙시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 문정

중소학교 봄가을방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문정 프로필 :

본명 문광수,
출생지 길림성 매허구시,
연변제 1 사범학교, 길림성교육학원 졸업,
교원, 연변작가협회 회원, 연변시인협회 회원,
'나와 조선어' 수기 공모 금상, 조선어문 교원 명제 글짓기 금상, 동포 수기 응모 우수상, 세계 조선족 문학작품 응모 자유시 대상 등 수상.

나는 교원인 동시에 낙시터였다. 30여년간 교편을 잡았지만 교원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낙시 경력의 더 길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 어릴 적부터 낙시를 배웠는데 낙시터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99년 10월 1일, 국경절 연휴 첫날이었다. 나는 자전거에 도시락과 낙시 가방을 싣고 '쌍선'이라는 시골 마을의 낙시터로 향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낙시터는 명절이라 그런지 아주 조용했다. 말지 않은 곳에 나보다 훨씬 년세가 많아보이는 로인 한분이 홀로 낙시대 두개를 펴고 앉아계셨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는 연길시에서 교육 사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장씨 성 (65세)의 로교원이셨다. 작년에 안개가 병으로 돌아간 후 두주전에 아들 집으로 오셨다고 했다. 같은 교원이라 무척 반가웠고 선생님은 세상

을 떠난 부인도 나와 같은 문씨라며 기뻐하셨다.

수인사를 나눈 후 나는 낙시터를 둘러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과배나무를 발견했다. 마침 목이 말라 한계 따먹으려고 다가갔다. 탐스러운 사과배는 많이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높은 곳에 달려있어 큰 돌맹이를 주어 나무를 광광 두드렸다. 생각대로 사과배 몇개가 떨어졌지만 그 순간 나는 "앗!"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눈이 툭툭 붓고 입안에 단맛이 돌며 입술이 뻣뻣하게 마비되었다. 수액을 빨아먹던 벌들에게 쓰인 것이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장선생님은 나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 말로는 일찍 왔기에 천만다행이지 시간이 지체되었더라면 기도가 막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장선생님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구명은인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 낙시 도구를 챙기지 못해 몽땅 잃어버렸다. 내가 마음 아파하자 장선생님은 아무 내색 없이 새 낙시대를 장만하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888 원짜리 (그 당시 내 월급과 맞먹는 큰돈) 낙시대를 선물하며 익살스럽게 말씀하셨다.

"문선생 덕분에 낡은 낙시대를 버리고 새 낙시대로 새 손맛을 보게 됐소. 하하하~"

내가 그럴 수 없다며 돈을 드리려 하자 장선생님은 "나는 교사요. 게다가 당신 선배이자 고급교사라 월급이 당신보다 훨씬 많소. 그리고 내가 너무 데면데면했던 탓에 이런 일이 생긴 만큼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오. 부담 가질 필요 없소."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하시는 모습에 송구스러웠고 어찌 그리 마음이 너그러우실까 감탄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묻자 장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에도 교사였고 지금도 교사이며 앞으로도 교사라고 생각하오.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그 말에 나는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고 문득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장선생님은 나보다 스무살 가까이 많았지만 같은 교직에 있었고 말이 통한다며 가까운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자고 하셨다.

우리는 함께 낙시를 다녔고 색다른 음식이나 집에 좋은 술이 생기면 서로를 초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장선생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중 한마디는 지금도 내 좌우명이 되어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원손잡이는 원래부터 원손잡이가 아니야. 알게 모르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지. 같은 리치로 사람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내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셨다. 10년전,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나를 살리겠다고 닷새 동안이나 뛰여다녀며 귀한 사향을 구해오셨다.

그런데 사람의 생사회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건강해보이던 장선생님께서 2020년 마지막 날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져 8일간 혼수상태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되돌아보면 1999년 국경절에 벌에 쏘여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된 셈이다. 그 일로 나는 평생의 스승을 만났고 단순한 은혜를 넘어선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

장선생님은 나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주셨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돕는 법, 원망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 남을 위해 베풀면서도 결코 베푼 티를 내지 않는 마음 등 많은 삶의 도리와 지혜들을 말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장선생님이 내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낙시대도, 사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나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 앞에서 묵묵히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가끔 혼자 낙시터에 앉아있으면 바람소리 사이로 장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선생, 오늘은 손맛 좀 볼까?"

그리곤 장선생님의 목소리는 오늘도 내 가슴속에서 살아숨쉬고 있다.



/자료사진

여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경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건의했다.

어떻게 봄가을방학을 단순한 방학 연장이 아닌 학생 성장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을까?

고급봉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한편으로 학교는 체계적인 사고로 수업 설계를 최적화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며 학생들의 재학 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업 일정의 도전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사회실천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연합체' 건설사업을 심화하고 기업, 사회구역, 사회시설과 련동하여 자원을 모아 '놀이와 학습 일체화' 목표를 중심으로 '5육융합' 휴일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중국교육보

[그때 그 이야기]

고중 시절의 일본어 복습제강

◎ 김금단

'인공지능+', 어떻게 교육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김금단 프로필 :

재한동포문인협회 회원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
연길시 5 중 교사 력임
현재 광둥성 해주시에서 무역회사에 근무

나는 고향을 떠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지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두차례의 이사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졌다. 그러나 유독 고중 3학년 때의 일본어 복습제강만은 지금도 집 서재를 지키고 있다.

고중 3학년 때 일본어선생님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직접 정성 들여 준비한 복습제강을 나누어주셨다. 당시만 해도 인쇄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 선생님은 직접 한장 한장 유묵으로 프린트하셨다. 나는 그 소중한 자료들을 한장도 버리지 않고 송곳으로 두군데에 구멍을 뚫어 하나의 파일로 묶어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그 복습제강에는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0리가 넘는 통학 길에 그날 배운 내용들을 머리속에 되새기며 복습했고 복습제강을 수없이 반복하여 공부한 덕분에 나는 대학입시에서 일본어 92점 (총점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모서리에 보풀이 일었지만 그 복습제강에는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했던 일본어 단어와 문법의 모든 지식이 살아숨쉬고 있다. 고중 3학년에서 지금까지 꼬박 3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와 함께해온 일본어 복습제강은 나를 가장 오래 동반한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사실 나의 일본어 사랑은 그보다 더 거슬러올라간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열린 일본어 경연대회에서 나는 10등이라는 마지막 등수를 차지했다. 비록 훌륭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 성적은 일본어에 대한 나의 뜨거운 흥미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중 1학년에서 나는 일본에 사는 친구 '구니아스 아키코 (国安明子)'와 펜팔을 시작했고 일본어에 대해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일본 친구는 내 편지에 답장을 보낼 때면 항상 내가 써서 보낸 편지를 복사한 후 틀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꼼꼼히 수정하여 함께 보내주었고 때로는 일본어로 된 소설책도 선물로 보내주었다. 그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사'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나는 펜팔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어로 주고받는 편지 왕래는 다소 단조롭기만 했던 고중생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공부한 덕분에 나와 구니아스 아키코는 모두 첫해에 대학에 진학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1990년대초, 동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길림성의 시험 장소는 장춘에 있는 동북사범대학 한곳뿐이었다. 당시 나는 연변대학 조문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대학에서 2년 밖에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일본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연변대학에서는 일본어학부 6명, 기타 학부 6명에게 시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본어가 전공이 아니었던 나는 3급 시험 자격을 가졌다.

약 1년 동안 일본어를 읽고 지냈지만 다행히 고중 때의 그 복습제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복습제강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단어와 문법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청력 부분이 걱정되어 일본어학부에 청강 신청을 하고 틈틈이 청력 공부를 했다. 일본어 사전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에 몰입하였기에 공속에서조차 일본어로 말할 정도였다. 그때 연변대학을 대표하여 일본어능력시험에 참가한 12명 학생 모두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의 노력과 정성이 좋은 결실을 맺어 너무나도 기뻐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일본어는 내게 단순한 외국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이었다.

얼마전 딸이 서재에서 꺼내놓은 그 복습제강을 발견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라고 묻는 딸에게 나는 고중 때 일본어 선생님의 열정, 대학입시의 치열함, 펜팔 친구와의 추억, 그리고 일본어능력시험을 준비하던 날들의 이야기까지 복습제강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흥미진진하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딸을 보면서 누렇게 바랜 복습제강이 단순한 학습자료를 넘어 딸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재 한편에 자리한 누렇게 바랜 복습제강을 볼 때마다 마음은 10여리 길을 통학하던 나의 10대와 20대, 30대로 되돌아간다. 그 시절의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일본어 복습제강을 들여다볼 때면 그 종이장 사이에서 딸과 노력을 일컫는, 나의 열정으로 가득찬 불타는 청춘을 다시 떠올려보며 내심의 미소를 금할 수 없다.

오늘날, 치열한 과학기술혁명과 대국간의 경쟁에 직면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인재 양성의 품질과 고품질 교육체계 구축과 관련된 '필수과제'이다. 올해 전국 망회 기간 많은 대표 위원들이 이에 대해 건언 회색했다.

AI 학습 파트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파트너를 제공하고 AI 칠판은 교실 수업을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과대신비 (科大讯飞) 리사장인 류경봉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교육용 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육 AI 알고리즘의 돌파와 장면 구현 방면에서 세계 선두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년간 전국정형 위원이며 할빈공업대학 교장 보조인 오립강은 인공지능과 교육의 융합 발전 주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인공지능이 교육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단계적 성과가 이미 초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립강은 인공지능이 현재 자원공급, 교수모식, 관리능력 등 여러 차원에서 교육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현대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특정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연구중 오립강은 일선 교사들이 대부분 기초 AI 도구의 사용 방법을 습득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설계와 수업 전체 과정에 유기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도구는 사용할 줄 알지만 수업에 융합시키지 못하는' 현실

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따라서 AI 기술의 인재 육성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오립강은 계층별 분류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AI와 교실 수업 융합의 핵심 능력에 집중하며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전개하고 량질의 사례와 1:1 지도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교사의 AI 응용 능력 평가 기제를 구축하여 평가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평가를 통해 활용을 촉진하며 교사가 '사용할 줄 알던 데로'부터 '능숙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조사연구중 전국정형 위원이며 중련자산 평가집단유한회사 리사장인 범수규는 대학교의 전공 건설 내용이 스마트 응용 장면의 수요와 잘 맞물리지 않으며 전공 설정의 갱신 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기술연구개발, 응용장면, 산업실천에서 선두기업의 핵심 우세를 적극 발휘하고 지능캠퍼스, 인공지능산업학원과 중점 실험실을 핵심 매개체로 삼아 대학의 '지능 기반'과 '데이터 알고리즘 엔진 (数算引擎)'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이 교육의 변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정형 위원이며 북경우전대학 교장인 서곤은 "대학 + 기업 + 기지학교' 협동 기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리론 자원과 교원 양성을 제공하고 기업이 기술 플랫폼과 계산력 버팀목을 제공하며 기지학교는 실천을 통해 복제 가능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넷 - 조문판



제 48 번째 식수절을 맞아 연길시교육계통에서는 형식이 새롭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주제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진은 3월 11일, 연길시진학소학교에서 연길시 진학가두 문신사회구역과 협력하여 전개한 '묵색을 심고 보호하며 초심을 지키고 민족정을 함께 구축하자'는 주제의 식수절 실천 활동 장면이다.

/중국조선족소년보